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

중진공
뉴스레터

중진공

중진공이 전하는 소식에 쫓겨

뉴스

2023. 12. VOL27

SPECIAL THEME

중소기업의 내일 핵심인재가 채움



중진공



중진공 뉴스레터
2023.12 VOL.27

Special Theme

중소기업의 내일 핵심인재가 채용

- 03 DASH BOARD
중소기업 인력 관련 지표
- 04 INSIGHT REPORT
- 06 중소기업in
(주)트위니
길 잘 찾는 로봇
직원의 마음길까지 살피며 갑니다
- 08 중진공 지원사업
- 10 플러스 지원정보
- 12 삼국지에서 배우는 인재 연금술
- 13 상황별 인력 지원사업 Top6

New Wave

12월의 경제 포커스

- 14 Hot! 키워드
- 15 경제 이슈 읽기
- 16 Monthly 경제 동향
- 17 DASH BOARD
금융경제지표 모니터링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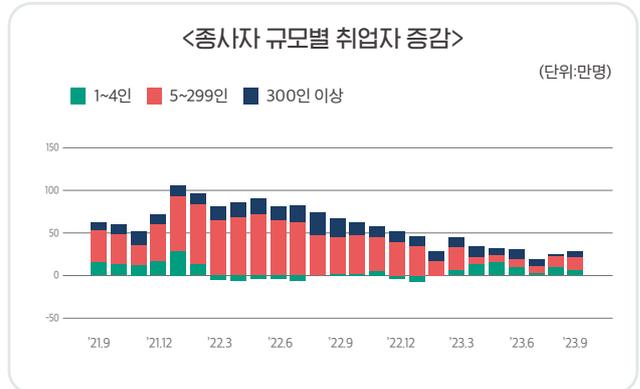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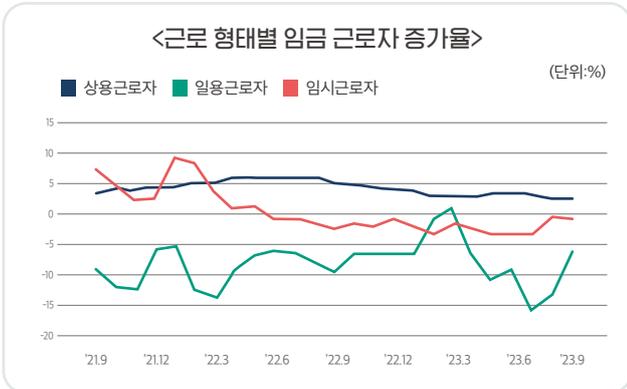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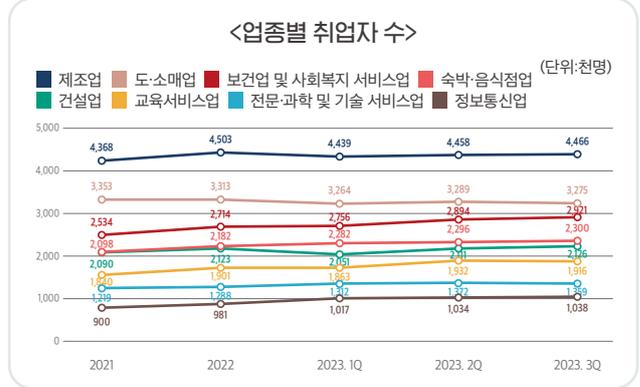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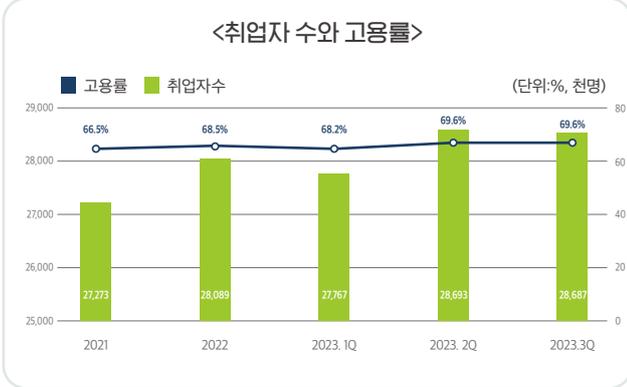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근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유용한 핵심인재 양성·관리전략과
지원정보를 소개합니다.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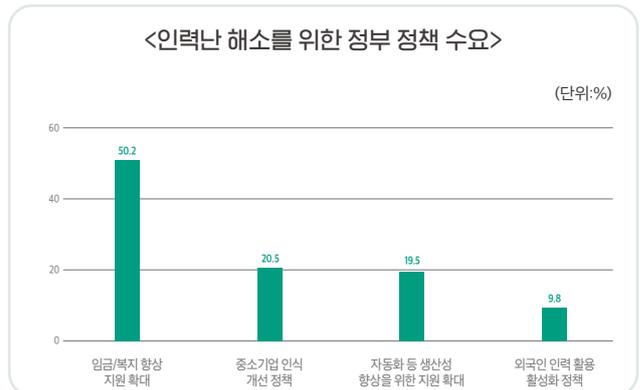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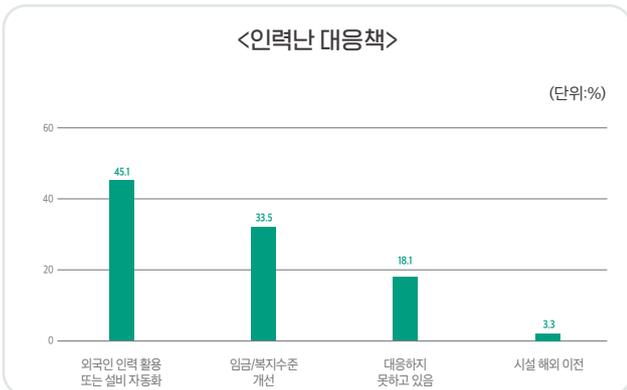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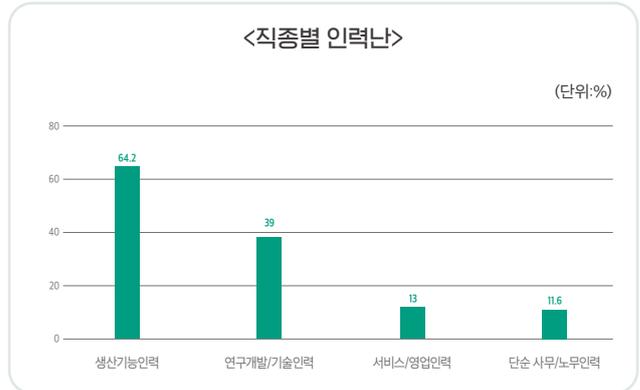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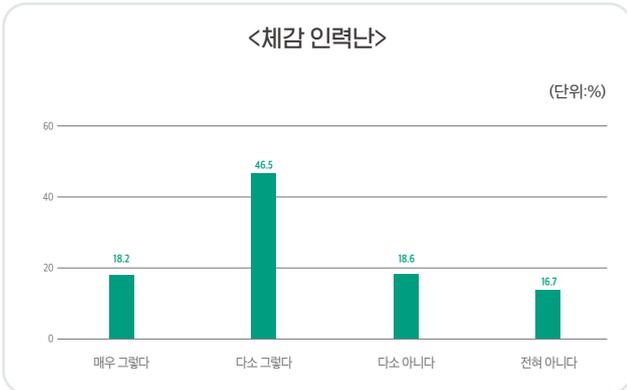
중소기업 인력 관련 지표 🔍



중소기업 인력 현황(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동향'('2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출처: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IBK경제브리프') * 제조업 중소기업 258개사 대상, '23.5.16~'23.5.19 설문조사



INSIGHT REPORT

최근 중소기업 인력 이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출처: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정부지원에 의한 격차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 필요
 - 산업별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화 등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 개혁
 -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정착
-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스킬업 전략 및 재산형성 지원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 향상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체계 구축, 일정 경력 구비 근로자 대상 국비유학생·산학겸임교수 등의 선발 쿼터제 도입
 - 우리사주제나 스톡옵션 제도 등 성과 공유형 보상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
- ☑ 고용유지 및 취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복잡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실수요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 통폐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임금지원을 장기근속에 확대되는 구조로 개편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업급여 수급보다 중소기업 취업이 유리하다는 근로 인식 고취 필요

제조업 미스매치 진단을 위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분석(출처:산업연구원)

- ☑ 미스매치의 근원에는 보수, 업무, 조직문화에 대한 사용자·노동자, 상급자·신입사원 사이의 의견 불일치 존재
 - 제조업의 인력 미스매치는 전자,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등의 산업에서 큰 규모로 발생 중
 - 기업은 청년 및 역량을 갖춘 인력 부족, 잦은 퇴사 등의 이유로, 구직자는 근무 강도나 업무 환경 대비 적은 보수와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스매치 발생
- ☑ 최근 비숙련·비근속 일자리의 증가와 주력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를 겪으며 산업 편중 현상 심화
 - 신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편의점, 음식점 등 비근속 일자리 산업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비근속 일자리 근무를 장려하는 정책 제도보다 생애주기에 걸쳐 숙련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필요
- ☑ 수도권 비근속 일자리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생애경력개발과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정책 마련
 - 구인난이 큰 폭으로 존재하고 장기적인 숙련 형성이 가능한 비수도권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중장기 근로 시 더 강한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는 증진적 보수 인센티브 설계, 동일 업종 내 이직 허용을 포함한 고용 정책 개선

국내 유연근무제도 도입 현황(출처:KDB미래전략연구소)

- ☑ 유연근무제는 팬데믹을 거쳐 대기업·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확산, 기업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유형 도입 중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활용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및 우수인력 이탈 방지 가능
 - '17년에 도입,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최대 연 520만 원 지원
- ☑ 공장 생산직 등 유연근무에 불리한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및 유연근무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노력 필요
 - 국내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19년 8월 10.8%에서 '22년 8월 16%로 증가했다가 팬데믹 종식 이후 '23.8월 기준 15.6%로 다소 주춤
 - 유형별로는 팬데믹 기간인 '21년 8월에는 재택·원격근무제 32.3%, 시차출퇴근제 29.9%, '23년 8월에는 시차출퇴근제 33%, 재택·원격근무제 19.9%
-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근무 방식 개선 등 유연근무제 확대 노력 지속
 -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집중근무를 통한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근무제의 점진적인 확산 기대
 - 유연근무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INSIGHT REPORT

최근 중소기업 인력 이슈 🔍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출처:한국경제연구원)

☑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 초래, 세계 주요국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경쟁

-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
-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에 공격적인 투자, 적극적인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확보, 관련 인재개발 전략 추진

☑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이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 필요

-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차 확대 되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 예상
- 과학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19년~'23년 800명에서 '24년~'28년에는 4만 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 예상

☑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미래 유망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시급

- 첨단산업 관련 학과에 한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 학과를 증설하는 등 과학기술 관련 학과 증설을 통해 관련 인력 양성
-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을 확대 하고, 기업 규모별 차등적인 R&D 지원제도 개선 필요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출처:한국금융연구원)

☑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 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필요성 제기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개인의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 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우대금리, 비과세, 기여금 매칭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사업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증가하고, 고용 안정성이 하락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완충 자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중요성 대두

☑ 해외의 경우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 지원

-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 대학교육계좌, 중앙적립기금 등 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연계해 미성년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자산형성 지원
- 영국도 아동발달계좌 만기 시 성인기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자산형성 효과 제고

☑ 국내의 경우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연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고령화시대 대응 효과 제고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청년자산형성사업과 중소기업 재직 중인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간의 연계 강화 필요
- 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연계해 출산, 육아, 취업, 은퇴 등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축적 효율성을 높여야 함

뿌리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개선과제(출처:한국고용정보원)

☑ 뿌리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으로 주력산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21년 말 기준 뿌리산업 사업체 수는 51,338개사로, 기반 공정 업체가 60.5%, 소재 다원화 공정 업체가 30.1% 차지
- 뿌리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41,833개사로 전체 뿌리기업의 81.5%를 차지하며, 50인 이상은 5.2%

☑ 뿌리산업의 '22년 미충원 인원은 18.5만 명이며, 미충원율은 15.4%로 '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타 업종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연령별로는 40대가 32.0%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이 34%, 이에 반해 20대는 10.5% 수준으로 신규 인력 유입 부족
- 용접, 표면처리, 주조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만성적인 구인난 심화

☑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일자리의 질 향상과 구인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화 필요

- 재직자들의 장기근속 유도과 청년 유입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도 적극 활용
- 신규 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 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소기업in

기업인을 만나다 🔍



(주)트위니

길 잘 찾는 로봇 직원의 마음길까지 살피며 갑니다

물류센터·공장 곳곳에서 길 찾아 운송까지 척척 '나르고'

2015년 창업한 (주)트위니(공동대표 천홍석·천영석)는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이다. 물류센터, 공장, 지하상가, 대학도서관, 병원, 기차역 같은 생활 공간에서 자유롭게 길을 찾고 물건을 운송하는 로봇을 만든다. 대표 솔루션은 '나르고' 시리즈다. 3D LiDAR 기반의 강인한 자기 위치 추정 기술, 회피·비회피 주행 기술을 탑재하고, 주변을 3차원으로 인식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가는 게 강점이다. 특히 올해 출시한 나르고 오더피킹은 각 물류센터의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연동해, 작업자가 주문 내역을 보고 물류센터 내 보관 물품을 찾아 픽업해 포장 프로세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대신한다. 현재 한익스프레스, 그루핑 등 국내 내로라하는 물류기업들로부터 대량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또한, 스마트오피스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에서 소형택배나 식음료 운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물류 서비스 전문 자율주행로봇 '나르고 딜리버리', 공장 물류에 특화된 저상형 자율주행로봇 '나르고 팩토리', 대화형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 기술을 적용한 '나르고 LLM' 등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처럼 '길을 가장 잘 찾는 로봇'을 만드는 (주)트위니는 현재까지 26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21년에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비전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에 이름을 올렸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문화에 내일채움공제까지, 확실한 동기부여

천영석 공동대표는 오늘날 (주)트위니를 만든 건 우수한 직원들이라고 말한다. 창업 초부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함께 꿈꿨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에 공을 들였다.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직원의 마음가짐이나 열정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 중심의 문화가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직원의 마음길을 살피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원에게 동기부여,
회사에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1 ㈜트위니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한익스프레스 남사물류센터에 설치된 ㈜트위니의 나르고 오더피킹 3 광명역에 설치된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 나르고(사진제공 한국철도공사) 4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을 지향한다는 천영석 공동대표

이 같은 신념에 바탕을 둔 ㈜트위니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안내하되, 주당 근무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협업을 위해 부서별 최소한의 약속만 지키면 출퇴근이 자유롭다. 자율을 부여하는 만큼 평가와 보상이 확실하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내일채움공제다.

㈜트위니는 2017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2023년 11월 기준, 전체 직원 160명 중 35%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다. 이미 만기 공제금을 수령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운영 방식도 남다르다. 회사에서 직원을 선별하지 않고 제도를 충분히 설명한 후 직원이 원하면 가입하는 식이다. 대개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에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르게, ㈜트위니는 직원들에게 폭넓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직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복지가 금전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내일채움공제는 더없이 좋은 제도죠. 직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천영석 공동대표는 “만기 공제금을 받는 직원의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행복감이 열정으로, 이 열정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든다고 믿고 있다. ㈜트위니는 내년 말 IPO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최고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 전문기업으로 착실히 레퍼런스를 쌓아 이를 토대로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타깃이 미국 시장이다. 천영석 대표는 현재 시리즈C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좀 더 드라마틱한 성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자신했다. ㈜트위니가 써 내려갈 새로운 드라마를 즐겁게 정주행할 날들을 기대한다.

TIP

천영석 대표가 추천하고픈

우리 회사 복지 BEST 3

- 01 — 자율출퇴근제 _ 부서별로 협업을 위한 약속을 정해 지키되,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는 게 포인트
- 02 — 고퀄리티 무제한 먹거리 _ 점심과 저녁, 그리고 카페까지. 맛난 걸 먹고 일한 직원이 때깔도 좋고 성과도 좋다.
- 03 — 내일채움공제 _ 직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금전’ 복지. 만기 공제금은 확실한 동기부여

중진공 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



핵심인재 오~래 붙잡아 둘 치르기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 잦은 이직으로 이종고 겪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신규 유입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렵게 채용한 인력이 장기간 근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력 문제의 핵심
- 근로자의 잦은 이직은 기술·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며,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지·임금 개선과 함께 정책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필요

비즈니스포스트

23.04.17 보도

인재 키워두면 뺏기니 이를 어쩌나

-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는 잦은 이직, 특히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11년 39.2세'→'20년 42.5세로 젊은층 이직 비중 높음
-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도 어려운데 그나마 키워둔 인재가 퇴사해 인력문제는 물론 기업 성장에도 치명타
-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인재인 만큼 이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내·외부적인 대응 필요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 중진공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8월 내일채움공제, '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출범해 '23년 10월까지 누적 219,909개사 836,112명이 가입했으며, 공제납입금은 104,306억원
- (내일채움공제란)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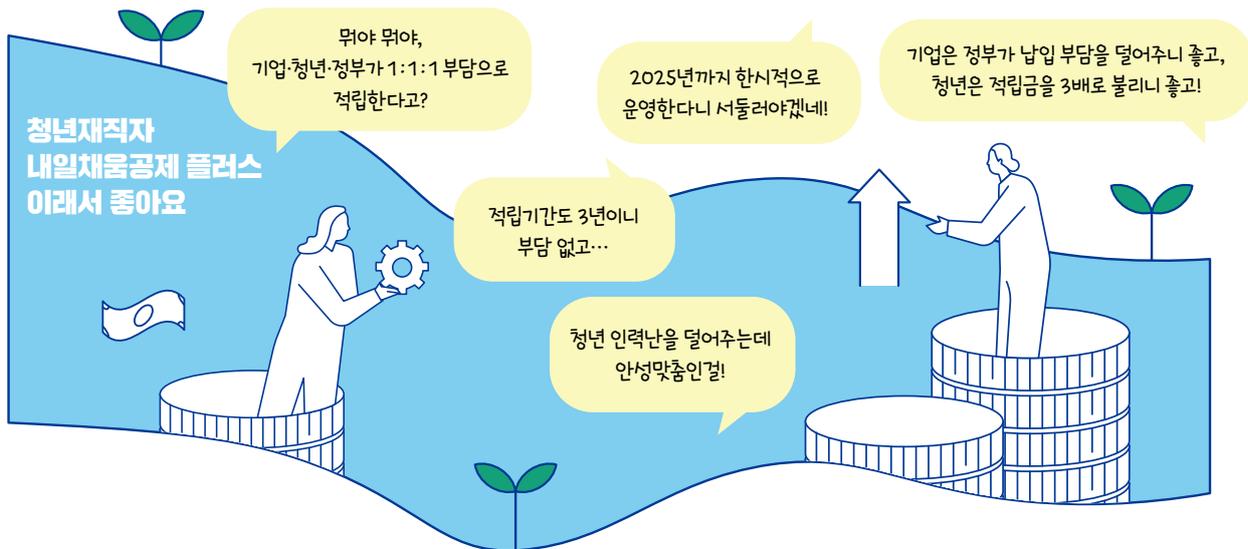
- (기업 지원혜택) 기업 납입금 전액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 (근로자 지원혜택)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세전) 이상 수령, 5년 이상 가입 후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 50% 이상 근로소득세 감면
- (신청 및 문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1588-6259

중진공 지원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금이 오래 다닐 청년 인재 원픽 타이밍!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Pick! 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대상

- (기업)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인력)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36개월, 기간변경 불가)
- (부금납입) 청년근로자·중소기업·정부가 동일 비율(3년간 각 600만원)로 공동 적립

구분	적립금액	
기업	600만원	• 1년차 : 14만원(매월 고정) • 2~3년차 : 18만원(매월 고정)
청년	600만원	
정부	600만원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립

- (수령금액) 3년 1,800만원 + 복리이자(분기별 변동금리)

지원혜택

- (기업)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인력)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월 33만3,000원 임금상승 효과)

문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플러스 지원정보



정부부처 지원정책



지역별 구인난 심한 업종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

- 지역마다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역 현장 상황을 반영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 추진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조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
-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외국인력 활용 방안 강화

#고용노동부#지역중소기업#빈일자리해소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 직업훈련 강화
-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하여 '24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 '23년 11월 중 결정할 예정
- '입국 전(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입국 후(외국인력 특화훈련), 재직 중(직종훈련)' 훈련 활성화, 외국인력의 숙련화 지원

#고용노동부#인력난#외국인력



연구개발(R&D) 구조개혁으로 국제협력-인력양성 확대

-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연구협력과 미래 산업 관련 이공계 인재양성 투자 확대
-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예산을 '23년 대비 28% 증액한 2,800억 원, 첨단산업 이공계 인력양성도 17% 증액한 2,300억 원 지원
- 대학과 산업계 현장 연계를 강화해 산학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성공 모델 구축·확산

#산업통상자원부#연구개발인력#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화학규제 혁신한다

- 화학물질 관리 인력난 등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 기준(학위 및 실무경력)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 산업 현장에서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교육이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던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관련 법 개정 논의 예정

#환경부#화학물질관리인력#규제혁신

중소기업 지원 사업



2023년 중소기업 연수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의 전문역량 향상과 현장실무능력 배양에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 지원

- 신청기간 : 12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취업대상자
- 신청방법 : (직무·정책·맞춤연수)sbti.kosmes.or.kr
(이러닝연수)cyber.kosmes.or.kr
(마이크로러닝)micro.kosmes.or.kr
- 문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031-490-1472)

#중진공#인력양성#연수



2023년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 구인애로 완화 및 구직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술자 매칭 및 현장실습 기간 훈련수당 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기업)현장 숙련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인애로 중소기업, (인력)해당 직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신청방법 : (기업)중진공 keylsy@kosmes.or.kr, (인력)일자리 매칭플랫폼(job.kosmes.or.kr) 온라인 신청
- 문의 :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1899-3001)

#기업인력애로센터#구인구직

플러스 지원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



2023년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현장 맞춤형교육을 통한 제조 실무인력 양성 및 인력 공급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기업)스마트공장 도입(예정) 중소기업, (인력)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취업희망자
- ☑ 신청방법 : (기업)중진공 keylsy@kosmes.or.kr, (인력)일자리 매칭플랫폼(job.kosmes.or.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1899-3001)

#중진공#기업인력애로센터#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023년 고용장려금 공모사업)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대상 :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기업
- ☑ 신청방법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고용노동부#실업자#고용창출



2023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창업 환경기업,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협회(expert@keia.kr) 이메일 신청
- ☑ 문의 : 한국환경산업협회(02-2088-5354)

#환경부#환경전문인력#인력매칭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단을 통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 ☑ 신청기간 : 12월 8일까지
- ☑ 신청대상 :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에(www.mssmiv.com)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357, 1811-3655)

#중진공#혁신바우처#제조중소기업



2023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SW 개발 인재 채용 기업 모집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개발자 양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및 인재와 기업 간 채용 연계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23~24년도 SW개발 분야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SW개발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한 기업
- ☑ 신청방법 : 메인비즈협회 일자리사업팀(02-2230-2193)
- ☑ 문의 : 메인비즈협회 일자리사업팀(02-2230-2193)

#중소벤처기업부#SW인재#채용연계



2023년 재직자·퇴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채용보조금 지원

원자력 분야 재·퇴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경력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채용보조금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17.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 중소·중견기업으로 2년 이상 경력 보유 인력을 '23.1.1 이후 채용한 기업
- ☑ 신청방법 : 원전기업지원센터(www.nisp.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02-6257-2570)

#산업통상자원부#채용보조금#원자력인력

삼국지에서 배우는 인재 연금술

人材 鍊金術



배짱두둑 인재확보형 조조



나는야 인재 수집가! ④ 조조는 인재를 찾아내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패권을 잡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가후·장합 등 뛰어난 인물을 발견하면 적군이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재물은 탐하지 않지만 사람은 놓치지 않을 만큼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인 덕분에 당대의 수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었다.

아물따, 오직 능력! ④ 사람을 뽑을 때 유비가 가문과 과거 행적을 눈여겨본 반면 조조는 세습 호족 세력을 격파하고 '오직 재주가 있으면 등용한다'는 능력우선 인재등용 정책을 펼쳤다. 신분, 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역량만 평가했으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구현령' 등을 통해 인재를 공개 모집해 막강한 인재 풀을 확보했다.

멀리플레이어보다 스페셜리스트 ④ 둔전제도로 군량 부족을 해결한 모개, 관리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투 능력이 뛰어난 하후연. 조조는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등용해 이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정권을 일임했다.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 덕분에 조조는 자신이 없어도 유연하게 잘 돌아가는 조직체계를 갖췄다.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④ 조조는 인재가 각각의 기량을 120% 펼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내는 감각도 탁월했다. 각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면 명예면 명예, 재물이면 재물, 그들이 원하는 상을 각각 수여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했다. 평가와 보상의 달인인 셈이다.

For You 인재관리형 유비



사람 좀 볼 줄 알지, 인재 선구안! ④ 유비는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남달랐다. 일찍이 장비나 관우와 같은 용맹한 무사를 알아보고 자기 곁에 두었으며, 두 사람에게서는 부족한 전략부문을 메우기 위해 명민함이 탁월한 제갈공명을 등용했다. 또한 언제나 좋은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정성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④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 약조건에도 세 번이나 찾아가 유비의 삼고초려 경영법은 유명하다.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한 덕분에 철옹성 같았던 제갈공명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제갈공명에 대한 주변의 시기에도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에 만난 것과 같으니 괜한 소리 말라"며 제갈공명을 감동시켰다.

인정욕구 완충, 이직을 제로! ④ 조자룡이 적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유비의 아들을 구해오자, 유비는 아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내 소중한 장수 조자룡을 잃을 뻔했다"고 했다. 조자룡은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유비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다짐했다. 조조의 포로가 된 관우가 전향 유혹을 물리치고 적토마를 탄 채 달아난 것도 유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유비가 조직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준 덕분이다.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④ 유비는 조조처럼 인재 풀이 넓지는 않았지만 이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지는 인재관리법을 구사함으로써 작은 조직으로도 효율성을 높였다. "유비가 지도자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한 인재들을 단결시켰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구성원들을 잘 살피고 헤아려 화합시키며 동기부여와 협업을 이끌어냈다.

상황별 인력 지원사업 Top 6



고용 지원금이 필요할 땐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이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내용 인건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지원대상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을 높인 기업

신청기간 연중 상시

문의 의 고용노동부 ☎ 1350 www.moel.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지원대상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의 고용노동부 ☎ 1350 www.moel.go.kr

고용 유지가 필요할 땐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내용 1일 최대 6만6,000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

지원대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의 고용노동부 ☎ 1350 www.moel.go.kr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중소기업 대표 인력지원사업이다.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해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내용 (기업) 납입금 손금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 수령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재직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

문의 의 내일채움공제 ☎ 1588-6259 www.sbcplan.or.kr

인력 매칭&양성이 필요할 땐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인력 매칭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구인업체 정보 및 구직 희망인력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실시간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인재 발굴 및 매칭, 사후관리 (근로자) AI 모의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 취업 매칭

지원대상 구인 희망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

문의 의 기업인력애로센터 ☎ 1899-3001 job.kosmes.or.kr

☑ 일학습병행제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조기에 채용해 NCS(국가 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현장 훈련을 실시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마치면 해당 분야 자격을 주는 일터 기반의 인력양성 지원사업이다.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수당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신청기간 연중 상시

문의 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www.hrdkorea.or.kr

Hot! 키워드



미국·유럽판 일대일로!



- 최근 G20 정상 회의에서 'IMEC(인도·중동·유럽경제회랑)'가 체결됨에 따라 중국의 '일대일로(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견제 카드로 주목
- 미국 주도 아래 아시아, 중동, 유럽을 철도와 해운 수송로로 잇고 석유, 전력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단일 경제 벨트로 묶음
- 중동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과 인도에서 중동을 연결하는 동쪽 회랑으로 구성될 계획



미리 훑어보자, 한 해를 시작하는 필수템



-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하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정한 키워드는 'DRAGON EYES'
- 인공지능의 시대지만 인문학적인 역량으로 화룡점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용의 눈을 뜻하는 'DRAGON EYES'로 정함
- 2024년을 이끌 10개 소비트렌드는 ① 분초사회 ② 호모 프롬프트 ③ 육각형인간 ④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⑤ 도파밍 ⑥ 요즘남편 없던아빠 ⑦ 스피노프 프로젝트 ⑧ 디토소비 ⑨ 리퀴드폴리탄 ⑩ 돌봄경제



뜻밖의 대박, 세금 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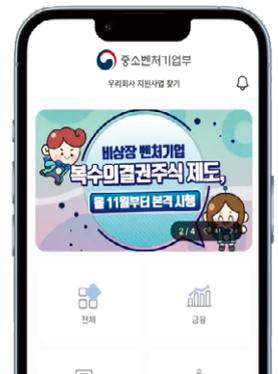
-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란 시장의 외부효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큰 수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익세'라고도 부름
-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EU 등 주요국 일부에서 도입 중
- '기업의 사회적 책임' vs '이중과세'로 나뉘어 세계가 갑론을박인 가운데 국내도 고금리·고유가로 이익을 창출한 은행과 정유사 대상의 횡재세 법안 처리를 놓고 찬반 논란



지원사업 찾아 헤매지 마세요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 시범 운영
-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지원사업 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을 캘린더와 푸시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용
- 중요한 정책정보는 메인화면 배너로 제공하며, 동행축제나 복수의결권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소기업부 정책정보도 주기적으로 공지



경제이슈 읽기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국내경제 전망

✓ '24년 국내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전망

-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나 이는 '23년의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 지속, '23년과 비슷한 1.8% 증가에 그칠 전망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은 완만한 회복세,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 회복에 따라 증가세 지속

-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부진한 흐름 지속,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23년 기저효과로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하여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폭이 확대 전망

-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3년(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내수 증가세 둔화로 취업자는 '23년(32만명)보다 줄어든 21만명 증가, 실업률은 2.7%→3.0%로 상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로 전망하며 이는 '23년의 3.0%보다 0.2%p 낮은 수준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이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주요 선진국 대부분 높은 금리와 부채부담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미국은 '24년 1.5%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일본은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안정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지역은 '24년 1.1%, 영국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지난 '23년 5월 대비 모두 하향 조정

✓ (신흥국) 주요 신흥국들의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대부분 지난 '23년 5월 대비 하향 조정

- 중국은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불안 요인으로 '23년보다 하락한 4.5% 전망
- 인도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과 안정적인 금융·정치 환경으로 6.2%의 성장률을 전망, 러시아는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1.0%의 낮은 성장세 전망

국제금융센터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2023년 10월 말 기준)

✓ 세계(+0.1%p) :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로 금년 세계경제 전망을 상향(2.9→3.1%)했으나 '25년에는 통화긴축의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경기둔화 불가피

- 미국(+0.2%p) : 건조한 소비로 3분기 성장이 가속화되며 금년 연간 성장률이 2%를 상회할 전망이나 금융상황 긴축, 재고·투자 약화

- 유로존(+0.1%p) : 제조업 등에서 서비스업까지 경기둔화 압력이 확산되면서 3분기 역성장, 기업심리 악화 및 통화긴축에 따른 내수 약화 등으로 향후 수분기간 경기 부진 예상
- 중국(+0.2%p) :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회했으며 정부의 부양기조 강화 등으로 금년 성장

- 목표(5%)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나 제조업의 위축국면 재진입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의 하방위험 존재
- 일본(-) : 고물가 등으로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성장 모멘텀에 위험, 다만 최근 감세 패키지 승인으로 경기부양 효과 기대

Monthly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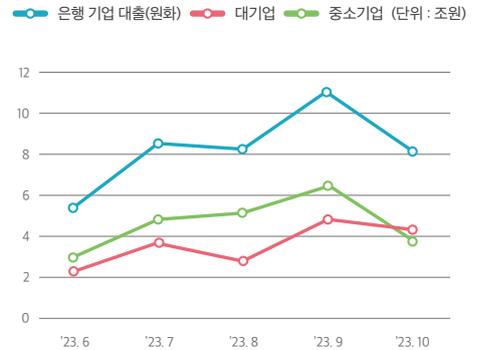


한국 은행

10월 금융시장 동향

- 국고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가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와 수급우려 등으로 급등한 데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으나 다시 반락
 - 단기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 은행채 금리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승
- 코스피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중동지역 리스크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
 -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이 증가하면서 증가 규모 확대('23.9월 +4.8조원→10월 +6.8조원)
 - 기업대출은 증가폭 축소(+11.3조원→+8.1조원),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 축소(+6.4조원→+3.8조원)

<기업 대출 추이>



* 기간 중 잔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국제 금융센터

10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 (주가) 세계주가는 금리 민감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전망 강화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조정국면 지속 (8월 말 대비 세계 -2.7%, 유로존 -2.9%, 신흥국 -2.6%)
 - 향후 주가는 유가 향방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나 추가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채권) 미국 장기금리(10년)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45bp, 4.56%)하다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시 일시 하락 후 4.8~4.9%대로 반등

- 국채금리는 중동분쟁 양상,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외환) 미국 달러화는 통화정책 차별화, 국채금리 상승,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으로 강세(+2.0%). 엔화는 미·일 금리차 확대에 약세(-2.4%)
 - 달러화는 중동분쟁으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억제, 12주간 강세 흐름 등에 따라 일시 조정이 예상되나 견조한 미국 경기 등으로 강세 기조는 유지

한국개발 연구원

11월 경제동향

- 경기 부진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 제조업 평균가동률(73.2%)이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점차 회복
 - 수출은 對 미국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
- 소비시장은 서비스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상품소비는 고금리 기조 등으로 여전히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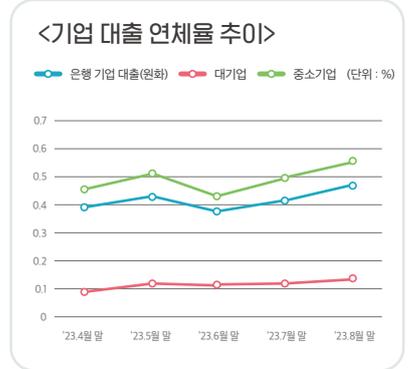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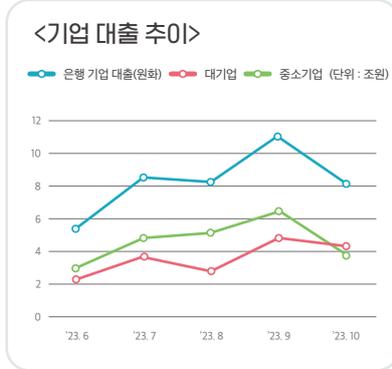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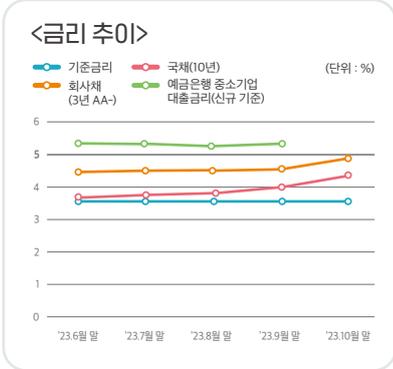
-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세의 완만한 둔화 추세는 유지
-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양호한 흐름 유지
 -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 완만, 제조업 부진 지속
-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계절조정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월 대비 0.2%p 상승한 64.4%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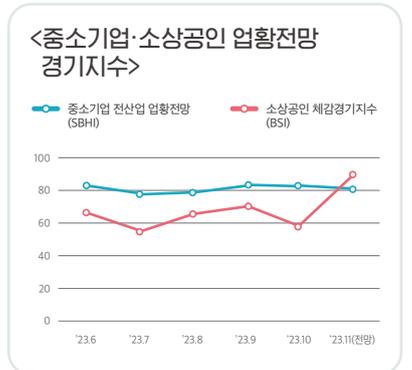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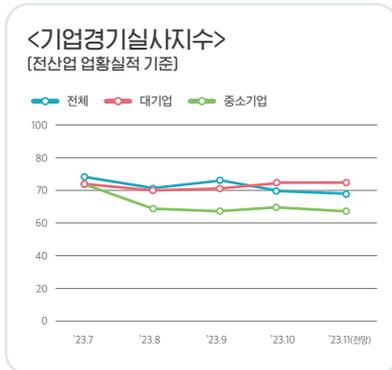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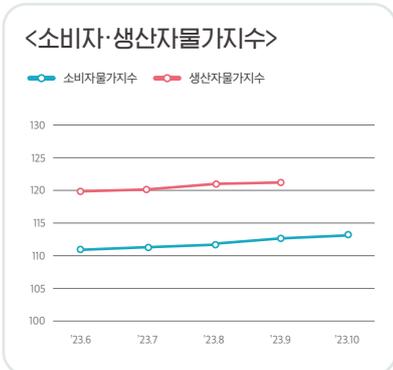
금융·실물경제지표 모니터링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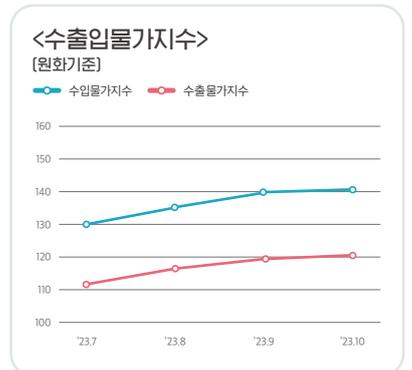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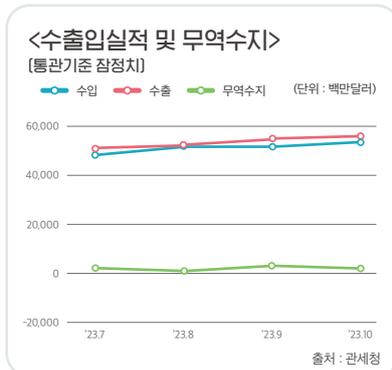


* 기간 중 잔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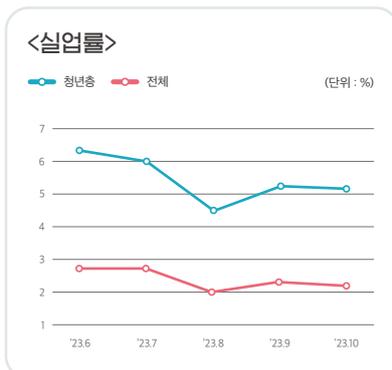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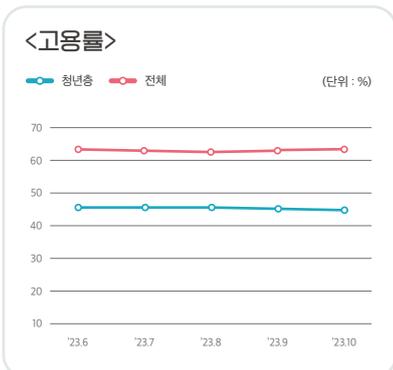
✓ 경제



✓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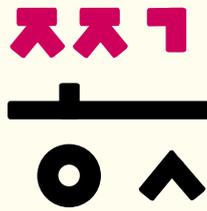
✓ 고용



참고자료

1. 한국은행-주요경제지표
2. e-나라지표
3. 한국무역협회-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4. 관세청-수출입 무역통계
5. 통계청-통계분류표
6. 국제금융센터-경제금융지표
7.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8. 제조업 미스매치 진단을 위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분석(산업연구원)
9. 국내 유연근무제도 도입 현황(KDB미래전략연구소)
10.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11.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한국금융연구원)
12. 부리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개선과제(한국금융정보원)
13. 2024년 국내경제 전망(한국개발연구원)
14. 2024년 세계경제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주요 투자는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국제금융센터)
16. 금융시장 동향(한국은행)
17. 국제금융시장 동향(국제금융센터)
18. 경제동향(한국개발연구원)

2023.12 VOL.27



발행일

2023년 12월(통권 제27호)

발행인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발행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정책연구실

기획

규제정책연구실 황호연, 김혜은, 이미혜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